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2

1

현장르포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합니다”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니눔 행사로 사랑을 함께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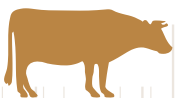
명절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백마령 희망의 꿈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이 땅위의 자존심
함께 준비하러~!



C·O·N·T·E·N·T·S

신년사	02
현장르포 청와대 한우반납운동 현장	03-06
기획특집 2012 설 전·후 한우판매대책	07
포커스 2012 한우산업 전망	08-09
Information 전국 한우 나눔행사 및 할인행사	10-11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12-14
애독자 코너 & 전문점 소개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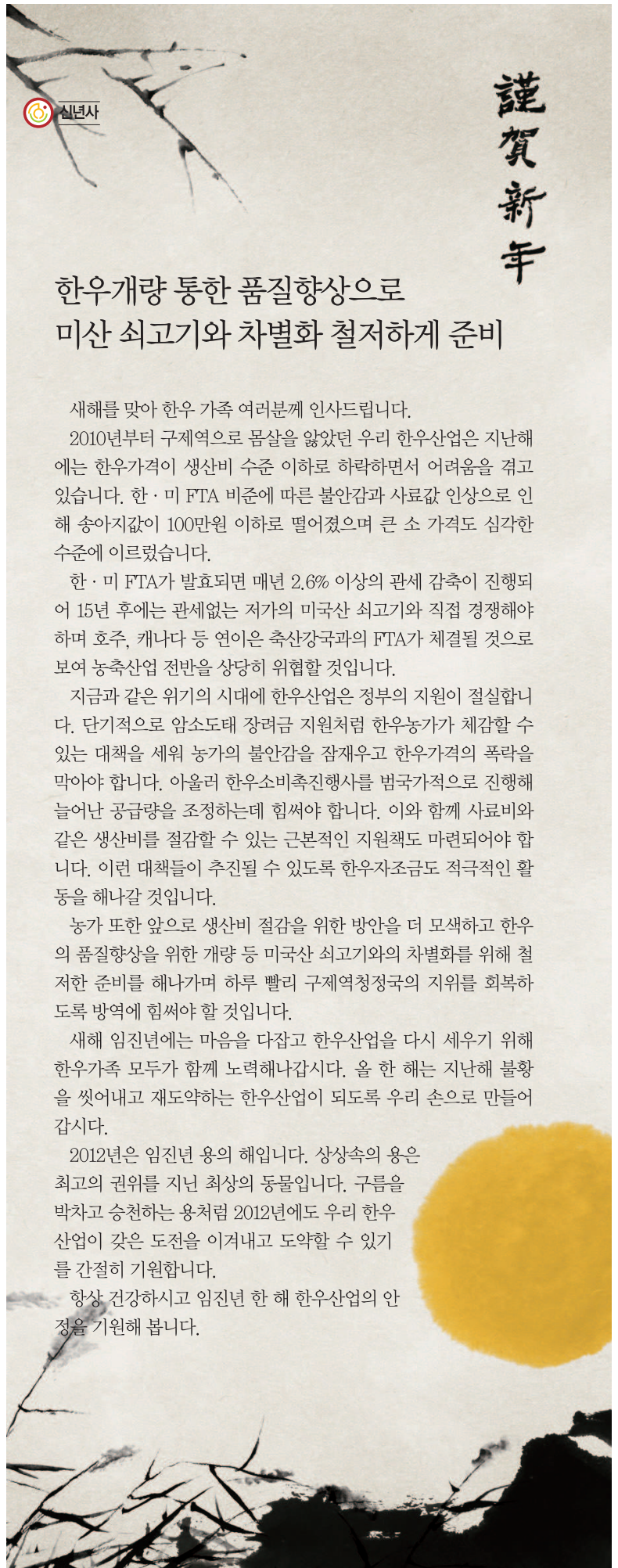
좌절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가장 절실한 때 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흑룡해를 맞아 한우농가에도 희망과 행운만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구제역과 한우값 폭락으로 한우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소·정이 합심해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등 곳곳이 우리 한우산업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우값 폭락과 EU, 미국과의 FTA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만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가장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2012년 올 한해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모아 도약해 나가는 한우산업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우개량 통한 품질향상으로 미산 쇠고기와 차별화 철저하게 준비

새해를 맞아 한우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10년부터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 한우산업은 지난해에는 한우가격이 생산비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불안감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송아지값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큰 소 가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매년 2.6% 이상의 관세 감축이 진행되어 15년 후에는 관세없는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와 직접 경쟁해야 하며 호주, 캐나다 등 연이은 축산강국과의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여 농축산업 전반을 상당히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한우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단기적으로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처럼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농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한우가격의 폭락을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한우소비촉진행사를 범국가적으로 진행해 늘어난 공급량을 조정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료비와 같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우자조금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농가 또한 앞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더 모색하고 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량 등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며 하루 빨리 구제역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해 임진년에는 마음을 다잡고 한우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우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올 한 해는 지난해 불황을 씻어내고 재도약하는 한우산업이 되도록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2012년은 임진년 용의 해입니다. 상상속의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동물입니다.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용처럼 2012년에도 우리 한우산업이 갖은 도전을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임진년 한 해 한우산업의 안정을 기원해 봅니다.



현장르포 | 청와대 한우반납운동 현장



한우농가의 눈물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합니다”

사료가 소를 먹는 지금**농가 외면하는 정부 각성하고 한우 30만마리 즉각 수매하라**

지난 5일 전국한우협회 소속 전국 10개 시·도지회를 비롯한 136개 지부는 청와대 한우반납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은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서 각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한우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2007년 한·미 FTA에 대한 논의 이후 농가에 현실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농가를 외면하는 정부의 각성과 한우 30만마리를 수매를 촉구합니다.”

농가의 심정과 요구사항을 밝힌 남호경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주장을 담은 구호를 외친 후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국 지역별 청와대 한우반납 운동은 경찰의 사전 원천 봉쇄속에서도 상경투쟁이 이루어졌으며 IC에서 막히자 도청앞 항의 기자회견과 도지사 면담을 추진했다.

IC 진입부터 원천봉쇄... ‘해도해도 너무한다’ 탄식

경기도지회

5일 오전 11시경 경기지역 한우농가 농민 7백여명이 안성IC과 곤지암IC, 김포 IC,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한·미FTA 폐기와 암소 30만두 즉각 수매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안성IC 앞 삼거리에서는 평택과 안성, 용인지역 농민 300명이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집회에 참가, 사료값 상승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에도 18개월된 암소와 60개월된 육견을 차량에서 내려 ‘소값이 개값이 됐다’며 시위를 이어갔으며, 경찰이 차량 운행을 봉쇄하자 인간띠를 형성해 왕복

8차선 도로로 이동하며 경찰과 고성을 주고 받는 실랑이를 벌였다.

같은 시각 곤지암IC 인근 경안천변 주차장

에도 거친 입김을 몰아쉬는 한우 10마리를 차량에 실은 광주, 양평, 이천지역 농민 300명이 집회를 가진 후 청와대 이동에 나섰지만 경찰의 저지에 실패했다.



현장르포 | 청와대 한우반납운동 현장

한편, 김포IC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집회를 가진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100명의 농민은 축사부터 경찰의 통제를 받는 바람에 한우를 싣고 오지는 못했으나 집

회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해 정부대책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산업 안정대책 촉구

강원도지회

전국한우협회 강원도 지회의 '한우 반납운동'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도내 한우농가 회원들은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 '한우산업 말살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항의집회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마쳤다.



변경현 강원도 지회장은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 수출 위주의 산업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가단위 원천봉쇄... 한우농가 요구사항 전달

충북도지회

충북은 보은IC부근에서 반납운동을 펼치려 했으나 농가단위 원천봉쇄로 인해 집결이 어려웠다. 이날 박병남 한우협회

충북도지회장은 충북도청을 항의방문하여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한우농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청앞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농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내놓아야

충남도지회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 소속 150여명의 회원농가는 지난 5일 충남도청 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값 폭락사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



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 체결 후속조치가 전무하다가 소가 굶어죽고 여론이 들끓으니 이제야 한우 군납책을 들고 나섰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앞서 도지회 간부 20여명은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와 면담하며 “농민들에게 부채만 안기는 사육시설 지원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도가 내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한우협회 천안시지부 회원 30여명은 목천 나들목에 집결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상경하지 못했다.

농약 묵고 콧 죽어뿌야 대책 마련해 줄라나...

경북도지회

국내 최대의 한우 생산단지인 경북에는 한우가격에 명운이 달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가의 절규가 이어졌다. 상주IC로 하나 둘 모여든 경북지역의 한우농가는 이내 2천여명과 소차 수백대가 상경투쟁

을 위해 모였으며 소 값 안정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 또한 점차 높아져갔다.

“소 값도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디. 한우농가가 농약을 묵고 콧 죽어뿌야 대책을 마련해 줄라나 봅니더.” 한 농가는 한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

어진 상황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를 성토했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한우 자급률을 50%까지 늘린다며 농가에 헛바람을 넣어놓고선 이제 와서 생산과잉이라며 농가에 책임을 묻는 법이 어딴냐”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진 못할망정 왜 물에 빠졌냐고 묻는 게 지금 정부의 행태”라고 말했다.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한우인들이 다 죽을



붕쇄를 풀지 않았고 상주IC에 모인 소들은 다시 농가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키워봤자 사료빛만 남는 현실...농가 분노 넘어 체념

경남도지회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함안 IC앞 공터에는 한우를 실은 트럭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다.

“키워봤자 돈이 남는기 아니고 사료빛이 남는다가이. 벋 짚이고 사료도 다 오르는데 정부는 여기저기서 쇠고기 수입이나 한타가고, 이것뿐만 아님니더. 좀 있으소 좀 많이 키우는 농가는 구제역 백신값도 농가한테 내라카란다네.”

소 값 하락에 좌절한 농가는 분노를 넘어 체념한 듯 해보



였다.

정호영 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은 “우리를 국민취급하지 않는 정부와 청와대가 소를 한번 제대로 키워보라”며 청와대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내 농민 800여명과 소 차 50대가 함안IC로 향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의 봉쇄에 격분한 한 농가는 “국민이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딴냐”고 거칠게 항의했으나 오랜 시간 경찰과의 실랑이에 지친 한우농가들은 경남도청으로 향했다.

경남도청 앞에 도착한 한우농가들은 도청 앞에 소를 풀어놓으려고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실랑이가 오랜 끝에 임채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과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을 끝낸 농가들은 비육우가격안정화, 한우30만마리 수매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집으로 향했다.

“소값 폭락 방지하면 폭탄되어 돌아올 것” 경고

전북도지회

“한·미FTA마저 날치기로 통과된 건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소 값이 하락했는데 계속 소를 키우라구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지난 5일 전주 IC에 집결한 한우농가들은 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IC에 집결하는 한우농가는 점차 늘어나며 한우가격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지만, 경찰의 봉쇄는 더욱 견고해져 격앙된 한우농가와 경찰간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전북 완주의 정용성 농가는 “송아지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 우사에 송아지가 가득찼다”며

“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 만큼 정부는 수매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서울로 상경해 한우농가의 현실에 대해 보여주고 싶었던 한우농가는 경찰의 봉쇄에 밀려 전북도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우농가들은 도청 앞에 모여 소 값 폭락을 방지하면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르포 | 청와대 한우반납운동 현장

심정 헤아려달라는데 정부는 귀막고 죄인 취급

전남도지회

비아 IC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한 농가들은 경찰의 봉쇄조치에 격분했고, 일부 한우농가는 경찰에게 봉쇄를 풀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우농가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봉쇄가 풀리지 않자 한우농가들은 전남도청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전남 광양에서 온 한 농가는 “소를 끌고 나와야하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는데 뜻에서 나온 것인데 정부는 귀를 막고 죄인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30분이 가까워지자 한우협회 전남도지회 소속 한우 농가 1,000여명과 소 5마리가 전남도청 앞에 도착했고 농가는 항의의 의미로 송아지 2마리를 도청 앞에 풀어놓은 후 소 값 안정화 대책 마련과 쇠고기 빅딜 반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농가의 목소리가 도청 앞을 메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한우가격 안정 방안으로 장흥과 함평에 한우



육가공공장 설립을 협의중이고, 사료 값 안정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의 땅을 확보해 옥수수 등 사료 작물을 심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IC 부근에도 차량 50여대가 한우를 싣고 순천 톨게이트를 상경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완전봉쇄로 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키울수록 손해보는 우리 입장 좀 알아주소

울산시지회

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회는 울주군 작천정 운동장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한우 반납운동’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축산농민들은 소값 하락



에 반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트럭에 한우 200여마리를 싣고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농가는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한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농가들은 집회 후 상경하기 위해 울산고속도로로 가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완전 통제했다. 상경 자체가 이뤄지지 않자 일부 축산농민은 트럭에서 소를 다시 내려 시위를 벌이려다가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농가 대부분 계약 약정 초과..사료도 공급판

제주도지회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소값 안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만 제주도지회장은 “우리는 소중한 가족이자 재산인 한우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반납하겠다”며 “생명 산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정부가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천창수 농가는 “축협이 농가의 신용도 등을 보고 필요한 사료를 약정 계약해 공급해주는데 제주도 농가들이 대부분 약정을 초과한 상태”라며 “소 값이 폭락하니 사료값을 감지 못해 끌릴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육지에서 소가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이제 제주에서도 현실화 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



직거래 장터 · 온라인 판매 ‘인기’ 명절이후 소비촉진 대책이 관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들은 새해의 기쁨보다는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소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이라면 올 설에는 대표 성수품인 과일이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우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한우자조금과 정부가 설을 전후해 진행하는 한우판매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 현장판매 동시 진행

한우자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과 함께 ‘설 대비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한우고기 선물세트는 차례용 · 보신 · 등심세트 등 8종류로 구성하여 시중판매가격 대비 25~38% 할인된 가격으로 NH쇼핑 및 농협안심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했으며 선물세트 수요가 많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협, 협회관계자가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판매도 진행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연계

한우114 ‘전국 한우할인정보안내’

한우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누리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 한우먹는날과 함께 차례용 정육세트 외 7종을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한우114에서는 전국의 모든 한우할인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상품별, 브랜드별, 행사별 구분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위를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한우협회 시·군지부 연계 직거래 장터 호황

서울광장 한우직거래 장터가 지난 13, 14일까지 양일간 열렸다. 1월의 매서운 한파속에서도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막 내린 이번 직거래장터는 시중가보다 10~40%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해 첫날에는 50마리 물량이 개장 3시간만에 매진되어 20마리 물량을 추가했지만 물려든 인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은 한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4~5시간씩 기다리기도 했다. 14일에도 100마리분을 준비했지만 금새 동이 났다. 이 후 18, 19일에는 과천정

마공원 내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해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고양시 한우협회와 고양축협은 지난 17일 덕양구청, 18일 일산동구청에서 ‘행주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어 시중가격보다 10~25% 할인 가격에 판매했다. 포천시도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포천축협 직영 정육점(신읍동)과 한우명가 내 한우판매장(선단동)에서 포천한우협회 후원과 포천축협 주관으로 ‘포천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행사를 운영했다.

공주시 한우협회는 ‘돈우정육점’이라는 정육점을 직접 차려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한우선물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직영식당을 운영, 소비자들이 바로 한우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해 한우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명절이후 소비촉진 대책 시급

한우시장은 명절이 지나면 다시 비수기로 접어들어 한우가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해 설 이후에도 한우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선 한우자조금과 정부, 농협은 협의를 통해 전국 농·축협 판매장에서 한우 암소고기 위주의 할인판매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납용 돼지고기 및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 · 공급하기 위해 1월부터 한·육우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납 대체시 한우 6,000마리분량을 소비시킬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한 소비책이 시급하다. ☺



포커스 | 2012 한우산업전망

한우산업 파동이나? 연착륙이나?

2012년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 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등으로 불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사육마릿수는 300만마리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도태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암소의 도축물량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가격 반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우산업이 파동으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의 기로가 될 2012년, 전문가와 업계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육마릿수 300만마리 수준 계속 유지 암소도태 효과도 상당히 늦어질 듯

◀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



2012년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 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해 사육마릿수는 300만마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마릿수가 금방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암소도태의 효과는 상당히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할인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년처럼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맞춰 경기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 올 해 한우산업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소비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다.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우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는 농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육마릿수를 줄인다고 해도 산지가격 폭락사태를 막을 모책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사료비 절감과 높은 생산비를 낮추는 것에 있을 것이다.

유통업체 · 백화점 할인 불구 소비자체감 낮아 농가경영 영향 미치는 사료부문 개선 필요

최근 유통에서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세트물량은 물론 평상시 판매 소비자가격이 17~18% 가량 내렸다. 문제는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내림이 없다는 것이다. 총선이 있는 해임에 불구하고 소값이 내리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012년 한우산업은 생산측면에서 10~20만 마리 안팎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육마릿수 300만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최근 들어 일부 생산자들은 송아지 값이 싼 것을 감안해 송아지 구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올 해 한우산업은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료부문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고 농가위주의 출하를 벗어나 조합을 필두로 한 패커 형태의 출하 시스템 개선과 유통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장동건 현대백화점 과장

과도한 불안감 조성 자제를 암소도축물량 소비촉진 · 수요확대 서둘러야



▲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올해 상반기는 한우산업이 파동으로 가느냐, 연착륙으로 가느냐의 기로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달 암소 도축마릿수는 작년대비 45%가 늘었고 올해는 3배에 달해 이 같은 암소의 과잉도축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현재 한우농가는 한·미 FTA국회비준과 송아지가격의 급락으로 패닉에 빠져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증가한 암소도축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 및 수요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번식농가는 조금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송아지가격이 폭락했지만 멀지 않아 송아지 값이 160~170만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번식농가는 160~170만원 수준에 맞춰 채산성이 없는 암소 개체는 비육·도태시키고 우량개체만 남겨야 한다.

한우산업은 고급육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올해와 내년이 지나면서 경락가격이 일정부분 회복되고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비육농가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용 절감 등 생산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우산업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 비행기가 급격하게 고도가 높아진 후 갑자기 낮아진다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비행기 모두 온전치 못할 것이다. 입식이 과열되는 것도 막아야하고 과도하게 도축하거나 입식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지금 입식되는 송아지가 출하되는 시점은 한우소비가 올해보다는 늘어난 2년 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목표자급률 설정과 소비촉진 대책 필요 지속적인 암소 과잉 출하시 악영향 우려돼

이종범 다알리아 목장 대표 ▶

암송아지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발표되자 암송아지가격이 많이 올랐고 송아지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큰 소 가격도 명절특수로 인해 일정부분 상승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우산업에 닥쳐올 상황은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료값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7~8월까지 암소의 과잉도축이 유지된다면 자연적인 가격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시적으로 몇십만원 지원되는 것이 농가의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산업전체에는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본다.

암소도태장려금으로 사육마릿수가 줄었을때 한우가격이 정상화를 이룬다면 다행이지만 사육마릿수가 수요를 못따라가게 되면서 가격이 급상승 한다면 그나마 자리를 잡았던 한우시장을 수입쇠고기에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써줘야 할 부분은 목표자급률 설정과 이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한우 할인판매

농가·지자체 연계 소비촉진행사 '연일 호황' 한우나눔행사로 사랑을 함께 나눠요

사료값 인상, 한우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7만 한우농가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한우농가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해 매년 진행해 온 '한우나눔행사'는 올해처럼 한우값이 폭락한 가운데 한우농가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한우고기를 전달해 평소보다 의미가 더 뜻 깊다.

이번 한우나눔행사에는 총 5억원의 예산으로 15만8천명이 먹을 수 있는 2만3천750kg의 한우고기를 구입해 명절을 전후 전국 각 도별 홀몸노인, 복지기관, 고아원, 양로원을 대상으로 설맞이 한우 나눔행사를 실시한다.



충남

지난 18일 충남도와 농협 충남본부는 충남도청에서 한우임시장터를 열어 충남 한우브랜드를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대성황을 이뤘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는 한우 2,000kg(시가 4,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기증서를 충남도에 전달했으며, 대전시를 방문해 700만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사골 약 300kg을 기탁했다. 한편 도는 산지 한우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암소도축사업추진, 소비촉진행사, 농·축협 및 축산물 유통직판장 판매가격 인하지도, 특사경 활동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경북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는 지난 17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고자 한우고기 3,000kg(금액 6,0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또한, 지난 17~18일 양일간 도청 주차장에서 경북 지역 축협과 공동으로 '설맞이 한우고기 직거래 할인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근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시중 가격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산지 한우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도 자체 한우고기 소비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편, 월 1회 이상 소비촉진행사 개최, 한우 암소 자율도태사업, 초·중·고 한우암소 급식사업, 농축협 및 축산물 유통직판장 판매 가격인하 지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한우가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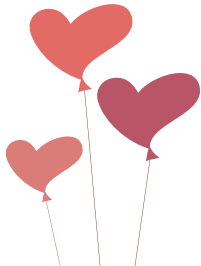
경남

전국한우협회 경남도지회와 경상남도, 농협경남 지역본부는 최근 산지 소 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일환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지난 16~17일 창원 LG 전자 제2공장에서 개최했다.

16일 '한우고기 시식회'는 LG전자 구내식당에서 8,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640kg 1,2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가 점심

국거리로 나왔다.

한우협회 경남도지회는 이날 한우고기 2,000kg(5,800만원상당)를 LG전자 소비촉진 행사장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호영 경남도지회장은 "사료 값은 인상된 반면 산지 소값은 하락되어 경영압박 등 한우농가가 많이 어렵지만,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통해 소값 안정을 기대하며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울산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축협은 지난 18일 군청 광장에서 한우고기 반값 할인판매행사를 열어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인 국거리와 산적 거리 위주로 한우 고기가 시중가보다 최고 50% 싸게 판매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시민이 길게 줄지어 서는 등 예상보다 많은 600여명의 시민이 행사에 참가했다. 당초 오전 11시에 한 마리, 오후 2시에 한 마리 분량을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인기에 힘입어 총 10마리 분량을 판매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회가 한우 국거리 750kg(1,500만원 상당)를 울산푸트뱅크에 전달했다. 전달된 한우 국거리는 결식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관내 어려운 750세대에 전달되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될 예정이다.

김두경 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한우 이미지 부각으로 우리 한우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나눔 행사 의미를 밝혔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고3 소년소녀가장 초청 희망나눔 행사

고3 소년소녀가장 140명 초청, 11~12일 희망나눔 캠페인

명사 초청 특강 · 레크리에이션 · 스키캠프 진행

SBS 공개홀서 킬투쇼 공개방송도 참여



한우자조금은 고3을 맞이한 소년소녀가장 140명을 초청, 지난 11~12일 1박2일간 한우 농가와 함께 하는 2012 희망 나눔 공동캠페인을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은 사회 첫걸음을 준비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첫날인 11일에는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주제로 KBS교향악단 함신의 상임지휘자의 특강과 함께 현악 4중주 공연

을 선보였다. 그 밖에 도미노 게임 등 조별로 단합하는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나에게로 쓰는 편지'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불고기, 한우 구이, 한우탕 등 든든하고 맛있는 한우 메뉴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캠프도 더불어 진행해 참가 학생들은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둘째날인 12일에는 목동 SBS 공개홀에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SBS 파워FM '두시탈출 킬투쇼' 공개방송 녹화에 참여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고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유도했다.

한우자조금은 "고3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희망을 주고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명절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한우선물세트 등 한우고기 40% 할인판매



▲ 12~13일 대전정부청사 할인판매

한우자조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MBC, KBS, 대전정부청사에서 한우직거래장터를 마련해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대전정부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한우 선물세트를 비롯, 한우 부분육을 기존가격 대비 평균 40% 가량 할인해 판매하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우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는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5일부터 6일까지는 MBC 여의도와 일산스튜디오에서 할인판매를 진행, 등심세트, 갈비세트, 보신탄세트 등 다양한 한우선물세트를 판매하며 응모권 이벤트도 병행해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 5~6일 MBC일산스튜디오 할인판매



▲ 9~10일 KBS 할인판매

기업체 한우 보내기 캠페인

대기업 한우선물세트 판매행사 동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삼성사회봉사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다니엘복지원과 까리따스 사회복지관을 잇따라 방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구입한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삼성은 최근 농협이 농림수산식품부·한우자조금 등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에 참여해 5,0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 설을 맞아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삼성은 또 그룹 임직원을 위한 사내 통신망에 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와 관련



된 내용을 알려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LG와 GS 등 다른 대기업들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에 속속 동참했다. LG와 GS는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통신망에 농협 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

을 게재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설 대목 동안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PPL



◀ KBS 2 브레인(1. 2)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기운이 없는 주인공의 여동생을 위해 기운을 내라는 의미로 주인공의 후배가 한우를 시준다.

SBS 나이트라인(1. 11) ▶

남호경 위원장이 출연해 한우값 폭락 원인과 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소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 MBC 시사매거진 2580(1. 15)

'소값 파동의 이유'를 주제로 파산직전인 위기의 한우농가를 알리고, 유통업체의 가격형성과 정부정책을 취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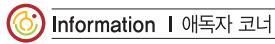


▲ KBS 2 다큐3일(1. 15)

생애 전부를 함께 해온 소를 보며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좌운리 사람들의 3일을 동행했다.

◀ SBS 힐링캠프(1. 16)

이민정 편, 한우선물세트를 얻기 위한 게임을 진행하고 한우를 시식한다.



한우소식 이모저모

구제역 백신 접종 변경 사항 안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등 간소화

- (현행) 소의 경우, '최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내역을 입력(위탁기관에서 대행)하고, 예방접종확인서도 발급·휴대해야 함
→ (개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발급·휴대 의무를 면제('1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거래 및 도축신청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 ※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건도 유사한 상황으로서 각 시·도는 '12년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예방접종 미 실시 농장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 예방접종 미 실시 농장 판정기준(추가확인 검사시) : 소 SP항체 80%미만
- 예방접종 미 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농장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추가 검사 실시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현행) 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축신청 불가
→ (개선) 도축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허용

한우경영정보시스템 게시판 오픈

개체별 관리부터 회계까지 한우경영의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인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이 정식 오픈했다.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우홍보관 ▶ 공개자료실 ▶ [프로그램]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을 클릭하여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개발된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은 번식이나 비육 또는 일괄사육농가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상 잔액은 물론 세밀한 농장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 PC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으며 농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번식분만작업부터 세밀한 경영정보까지 입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애독자 코너



다음달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 및 도축신청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축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최종 접종일로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 미 실시 농장으로 판정되는 곳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1차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기준 미달 시 2개월 이내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SP항체가 00% 미만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미접종 기준이 되는 SP항체형성율은 몇 %미만일까요?** 한우자조금 1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이치 설사 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2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박재민(경기 남양주시), 유종덕(강원 홍천군), 이왕연(충남 홍성군), 이은식(전남 강진군), 이판출(광주 광산구), 김용매(전북 고창군)

인증점 소개

조영식당

전화 : 052-262-1271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49-1



한우판매인증점 조영식당에 들어가면 곁이 곱고 윤기가 흐르는 한우 고기가 먼저 들어온다. 한우 암소 100여두를 직접 사육하다가 유통 마진을 없앤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식당을 개점한 이 곳은 그에 걸맞게 1++등급 한우 고기를 다른 업소와는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하고 있어 개점 초기부터 싸고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집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정된 한우불고기특구에 발맞춰 울산,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크고 작은 간담회와 피로연, 가족 모임 등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출 제8권 제25호 통권 제75호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화관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위에 자존심



**‘망소 사육득속 줄이기’
한우산업 만점을 말당깁니다!**



謹賀新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